

전주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슬픈 동물원에서 행복 동물원으로

민선6기 전주시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은 전주동물원이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장 슬픈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인간과 자연 등과 벗삼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동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동물원, 콘크리트 걷어 낸 생태서식지로 탈바꿈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각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생태동물원 다올마당을 구성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설계용역 등을 바탕으로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먼저, 캐나다 기러기 등 11종 41마리가 살고 있는 물새장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 조류별 개체에 맞는 수목 등을 식재하고 보금자리를 자연서식지와 유사하게 조성하여 활발한 번식활동을 유도했다.

또한 사자·호랑이를 기존의 좁은 활동공간을 2배 이상 확장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맹수의 특성을 우려, 기존 맹수 탈출 방지를 위해 깊고 넓게 파놓았던 함정을 흙으로 메우고 호랑이와 사자에게 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다.

늑대사 역시 그동안 작은 우리에서 생활하던 늑대들에게 야생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면서 생태적인 새로운 보금자리로 탄생했다. 새로운 늑대사는 자연형으로 방사장 지붕을 없애고,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바위와 작은 나무, 잔디 등의 자연소재를 활용했으며, 방사장 면적도 기존보다 50배 정도 넓게 확장에 늑대 4마리가 생활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다람쥐원숭이사, 코끼리사 신축과 함께 국비 7억5000만원 등 총 21억원이 투입해 공사를 신축하

며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완성도가 높았다.

새로운 공사는 기존 261㎡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온 곰들을 위해 9배 넓어진 약 2,326㎡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국내 동물원으로는 드물게 총 11개의 방으로 구성된 내실과 3개의 방사장에 동물을 교차 방사할 수 있

이에 시는 동물치유쉼터(동물병원)를 신축하여 혈구분석기, 생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를 구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게 했고, 구제역·AI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영양제 및 질병예방제 투약을 실시했다.

동물들에게 같은 종끼리 무리를 이루어 주고 무리내 따돌림 대피 피난처 등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풍부화 등의 동물행동풍부화를 통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왔다.

한편, 지난 2016년 여름 쌍둥이 아기 호랑이가 탄생했다. 전주동물원의 새 식구인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는 출산 100일을 기념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한 결과 천둥이와 번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가 진정한 생태도시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공간이 바로 동물원일 것"이라며, "동물은 단순 불거리가 아닌 인간과 교감하는 존엄한 생명인 만큼 앞으로 전주동물원을 단순한 전시 중심에서 벗어나 동물이 주인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2015년부터 생태동물원 조성 마스터플랜 완성 동물 보금자리 확장 등 나서... 건강수명 증진도

는 순환 방사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생명존중과 자연 생태계에 다양성 배움의 장소

전주시는 동물들의 거주지 환경변화와 함께 동물의 건강수명 증진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한, 야생에서 직접 먹이를 구하듯 먹이를 이곳저곳 숨겨놓는 먹이 풍부화, 그네, 밧줄, 공, 선물상자, 고리걸이, 인형, 주사위 등 놀이기구 설치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 풍부화, 포식자 울음소리를 통한 생존 전략 기르기, 후각을 이용한 먹이 찾기의 감각풍부화, 무리 생활하는



푸른 하늘에 걸린듯한 연등

부처님 오신 날을 시를 앞둔 9일 전주시 정혜사에서 관계자가 연등을 걸며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전주시, 울 27억여원 투입 매출증대·자생력 강화 집중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등 추진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영안정을 돕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올해 총 27억여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 수수료 0.3%를 지원한다. 사업은 5월 중 공과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를 최대 지원할 경우 전주시역 1만3000여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상관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분석 △경영진단 및 영업마케팅 △고객서비스교육 △인력관리 △업종전환 △매장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컨설팅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소상인뿐만 아니라 업종전환자·예비 창업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시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전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의 국내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시 부스비를 업체당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0개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향토업체가 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0%대의 결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모집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폭넓은 참여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여성 등산객 강제추행하다 벌미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강제로 겨안고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모(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경 전북 전주시의 한 야산을 오르던 등산객 B씨를 뒤에서 겨안고 나뭇가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법치신고 112·화재신고 119

'냉장고에 돈 보관시켜'... 경찰 사칭까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붙잡혀

경찰을 사칭해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도록 시킨 뒤,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8분경 군산시내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 B모(80)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

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주 만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동 주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모 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수수료 100만 원을 뺀 1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강석훈 기자

전 부인의 언니 둔기로 내려친 50대 '징역 7년'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B모(58)씨를 둔기로 15차례 내려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한 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도시로 지정된 전주시가 통합돌봄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공공과 민간의 돌봄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의 정책 방향 및 전주시 세부사업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의료, 주거, 요양, 돌봄 등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초등 대상 식교육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9일 송천동 새마을 부녀자회원 40여명과 전주동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푸드 식교육 '지구 전주'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송천동새마을 부녀자 회원들은 이날 전마동에 있는 버섯농장과 호성동에 있는 채소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가들의 생생한 농사이야기를 듣고, 버섯 및 오이 등을 직접 수확했다.

또한 전주동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40여명도 전주푸드의 친환경농산물 주요생산자인 금삼동 일대 친환경농업단지를 방문해 전주지역 초·중·고에 공급되고 있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견학했다. /송효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